

세월호 재난상담에 참여한 여성상담자의 성장에 관한 생애사 연구*

이 동 훈 신 지 영[†] 김 유 진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안산 지역의 세월호 재난상담에 참여한 여성 상담자의 성장 과정을 탐색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월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심리지원 및 상담활동을 하고 안산 지역사회의 집단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심리지원 방안 수립 활동에 참여해 오며, 이를 통해 본인의 삶 전체에 대한 성찰을 경험한 50대 후반의 여성 1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자료분석은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생애사 분석틀인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 적응(adaptions)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삶의 영역은 「자아상을 형성한 어린시절」, 「동화 속 결혼」,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슬픔 속에서 한 발 내딛기」, 「상담자의 길」, 「반듯하게 자란 자녀들」, 「세월호 사건」으로 7개, 삶의 전환점은 「생 앞에 놓인 죽음」, 「삶의 이정표, 상담」 2개였으며, 적응은 「세월호 이전」, 「세월호 이후」 2개로 분석되었다. 생애사적 관점을 통해 세월호 사건이 한 개인의 삶에, 특히나 상담자로서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를 가졌으며, 그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상담자의 성장에 관한 내적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논의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세월호, 여성상담자, 상담자 성장, Mandelbaum 생애사분석

* 본 연구는 2015년도 국민안전처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과제의 성과임[NEMA-인적-2014-40].

† 교신저자 : 신지영,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 sjy337@naver.com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재난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지진, 태풍, 해일 등과 같은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재난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사회재난으로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그리고 작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재난들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재난 피해자에게 사회적 기능장애 및 정신·심리적인 장애도 야기하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의 대표적 증상은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과 무기력증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이 재난 피해 이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강영훈, 2011; 채은희, 2006).

재난 피해자들의 정신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도와주기 위한 재난 심리지원제도를 구축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재난 발생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 전략을 수립하여 시기적절한 심리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재난 피해 심리 지원을 위해 마음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재난 발생 시 재난 위기상담 프로그램(CCP: Crisis Counseling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을 재난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990년대까지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졌고 2007년부터 심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 제도를 통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가고 있다(박성우, 2010).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당한 피해자 심리지원의 핵심 중 하나는 상담 및 심리치료

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인 외상이 있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는 다른 일반적인 심리치료 상담을 할 때 보다 더욱 지치고 소모된다(Corey, Corey, & Callanan, 2005). 내담자의 외상경험에 상담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상담자 역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McCann & Pearlman, 1990), 무력감·무망감과 같은 심리상태(Herman, 1997)를 보이게 된다. 또한 활기를 잃게 되어 신체적 변화도 겪게 되며 이와 함께 걱정, 정서적 피로감, 좌절감으로 인해 정서적 안녕감과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신념도 부정적인 변화를 겪는다(권해수, 김소라, 2006; 권해수, 2011; 김보경, 2012; 박윤미, 윤혜미, 2011; 박지영, 2008, 2013; 신혜섭, 2010; 정여주, 2011; Adams, Boscarino & Figley, 2006; McCann & Pearlman, 1990, Pearlman & Saakvitne, 1995). 그 결과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의 외상경험을 상담자 자신도 경험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러,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심리적 외상 증상을 겪게 된다(신혜섭, 2010; Adams, Boscarino & Figley, 2006; Trippant, Kress & Wilcoxon., 2004).

그러나 이러한 외상 경험 내담자를 상담하는 것이 상담자들에게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외상 경험 내담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권해수, 김소라, 2006). 상담자 개인의 특성은 상담자의 외상 경험, 연령, 경력, 훈련 수준,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지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상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와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상담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성장을 경험하는 상담자도 있다. 외상 상담을 통해 일의 의미 발견, 내담자의 내면적 힘과 삶의 용기에 대한 경외감, 자기 존재의 의미, 영성, 내담자에 대한 재평가 등 상담자들은 외상 상담 과정에서 상담 이전과 다른 관점들을 가지게 된다(권혜수, 김소라, 2006). 또한 자신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무력하거나 취약할 수도 있다는 자기 통찰을 가지게 되고, 대인관계의 깊이가 증가하며,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영적·종교적 관심이 증가하며, 삶에 대해 감사하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상담자는 경험하게 된다(이양자, 정남운, 2008; Calhoun, Cann, Tedeschi, & McMilan, 2000).

외상 상담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낸 상담자의 요인으로는 상담자의 성별, 나이, 훈련과 경력정도 등의 기술적 측면부터 대인관계 양식, 개입방식, 자기노출, 성격, 정서적 웰빙, 가치, 종교적 신념, 문화적 태도, 관계형성능력, 이론적 성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주목받아왔다(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Brown & Lent, 2000; Beutler, Malik, Alimohamed, Harwood, Talebi, Noble, & Wong, 2004). 또한 Harrison과 Westwood(2009)는 외상을 경험하는 내담자들을 주로 상담하는 상담자들 중 대리외상이나 소진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상담자들이 보이는 공통된 특성으로, 전문적·개인적·영적 영역의 균형적 발달, 자기 인식 발달, 의식적으로 자신의 시각을 넓히려는 노력함, 적극적으로 낙관적임, 총체적으로 자신을 보살핌, 선을 명확히 하고 한계를 받아들임, 정교한 공감, 전문가로서 만족, 의미 생성의 9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상담자의 과거 외상경험이 외상 상담 시 상

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다. 과거 외상 경험이 있는 상담자가 외상 상담을 할 때 외상 경험이 있는 상담자가 그렇지 않은 상담자에 비해서 대리외상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박지영, 2008; VanDeusen & Way, 2006; Way et al., 2004).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외상 경험 그 자체는 상담자가 외상 상담을 통해 대리외상을 경험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Benatar, 2000; Follette, Polusny & Milbeck, 1994; Ghahramanlou & Brodbeck, 2000). 그 이유는 상담자로서 전문가적 경험이 과거 외상 경험과 현재의 대리외상 경험을 중재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외상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대리 외상에 취약하지는 않다(Benatar, 2000)는 것이다. 즉, 상담자가 상담자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그를 통해 단단해질수록 대리외상을 경험하기 보다는 상담자로서, 인간으로서 성장을 경험한다는 말이다.

상담자의 발달과정에 대해 Loganbill, Hardy, Delworth(1982)는 상담자들은 상담과정에서 미숙기, 정체기, 혼란기, 통합기를 거치는데 마지막 통합기에 융통성이 증가하고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며 개인적인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Skovholt와 Rønnestad(1992)는 상담자는 생애 지속적인 수련과 임상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자기 발달'과 '개인적 자기 발달'의 통합을 이루는데 이는 상담자의 발달과정에 개인적, 관계적 삶의 경험이 중요하며 상담자의 성장이 단순히 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인 하나인 Mandelbaum(1973)의 생애사 분석 틀을 사용하

여,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을 상담한 상담자를 인터뷰하고 그 구술 내용을 토대로 삶의 영역, 전환점, 그리고 적응의 측면에서 축어록을 분석하였다. Mandelbaum의 분석방법을 택한 이유는, 연구참여자의 전 생애를 통해 중요한 사건과 환경들이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를 가졌으며, 그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했는지 살펴보기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재난관련 상담경험이 한 개인으로서 변화와 상담자로서의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재난상담 참여경험이 상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상담자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또한 이문희, 하정(2001)의 '대가 이동식 선생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정도이다.

본 연구는 안산 지역에서 세월호 재난상담에 참여한 상담자의 성장 과정을 탐색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 인간의 생애 과정에서 일생에 걸친 여러 위기를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생애사적 관점을 통해 세월호 사건이 한 개인의 삶에, 특히나 상담자로서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를 가졌으며, 그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상담자의 성장에 관한 내적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생애사 연구

개인의 심리 및 정서의 깊은 이해는 심리상태를 계량화한 양적 연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개인의 성장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개인사적인 경험들과 그 경험들을 통해 형성된 사고, 가치관, 심리적 변화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삶 속에서 국가, 지역, 사회, 가정의 환경적인 요인들도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생의 전반에 걸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살아 온 모든 행위가 구조화된 자기상이며, 사회와의 상호 작용에 의한 구성물이라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는(Mandelbaum, 1973) 생애사 연구를 분석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생애를 통해 그의 삶에 대한 관점, 가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현상에 대한 반복적이며 묘사적인 서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된 생애사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연구자로 하여금 단지 연구참여자가 체험한 삶의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의 생애사로부터 출발된 특성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맥락과 더불어 해석되어지며 특수성과 보편성을 넘나들면서 그 특성들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을 계획할 수 있게 한다. 즉, 개인의 발달과정을 생애 발달의 연속적인 측면과 사회와의 상호 작용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 뿐 아니라 이들이 경험하고 이는 생활세계의 특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 시

각을 제공하여 현상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 세계를 살펴보는 것이다(이효선, 2010).

Mandelbaum은 생애사 연구를 서술적 수준이 아니라 분석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대기순 생애사 서술에서 벗어나 구조화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Mandelbaum(1973)은 생물학적(biological) 영역, 심리적(psychology) 영역, 심리사회적(psychosocial) 영역, 사회적(social) 영역, 문화적(cultural) 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 3가지로 연구 참여자 생애 개념 분석 틀을 제시했다.

삶의 영역이란 개인의 삶을 몇 가지로 나누어 물리적, 정신적 영역을 포함하여 단순한 삶의 내용분석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구조를 분석하는 틀로서 삶의 원동력을 이해하는 것이다. 전환점은 연구자의 능력이나 판단에 가장 좌우되는 부분인데 개인의 삶의 전환점 그리고 왜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전후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적응은 개인의 고유한 적응양식으로 전환점을 맞이한 개인이 어떤 대처를 통해 자기를 발전시켜 나갔는지 분석하는 것인데 ‘발전’, ‘대처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연구대상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세평(世評)적 사례선택 방법을 선택하였다. 세평적 사례선택이란 특정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경험이 많은 관계자들에게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방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지역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자원봉사자 신분이나 전문 심리지원가로 참여했던 다양한 분야의 상담자 약 50여명에게 연구목적과 취지

를 설명한 후 6명을 추천 받았다. 추천 받은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수 1인과 상담심리학 박사 1인이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고 세월호 피해자 재난 상담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한 심리적인 변화를 탐색하였다. 사전 인터뷰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세월호 피해자 상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크게 경험하였으며, 이 상담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변화를 경험한 상담자도 있었다.

연구자들은 세월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여 동안 다양한 심리지원 및 상담활동에 참여해오고,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안산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 수립에 참여해왔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삶 전체에 대한 성찰을 경험한 50대 후반의 여성 1인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안산에 위치한 정부부처 산하 상담관련 기관의 책임자로서 안산지역에 살면서 상담전문가로 20여 년간 활동해왔다.

사전 인터뷰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개인의 위기들이 있었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형성된 대응 전략이 개인적으로 명확히 확립되어 있었으며, 세월호 피해자 관련 심리지원 활동 참여를 계기로 한 개인 및 상담자로서 큰 성찰을 경험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생애사연구 관점에서 한 개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관찰해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본 연구 참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고 인터뷰 과정 중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성찰의 기회를 갖는데 자신의 인터뷰가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구 참여자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빨리

잊혀지는 것에 대해 염려했다. 그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이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세월호 관련 연구에 참여해서 그 메시지를 이러한 연구와 기록물을 통해 사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며, 이게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자신의 애도방식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6가지 방법인 심층 면담, 참여관찰, 직접관찰, 기록문, 문헌자료, 인공물 중 본 연구는 심층 면담을 자료 수집 방법으로 선정하였고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준비하여 연구참여자의 전 생애에 걸친 사건들과 그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생각, 행동의 변화를 심도 있게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는 언제나 논리적인 이성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험과 연관된 자신의 느낌이 작용하게 된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과 그 분석을 통해 과거에 대한 의미구성이 이루어짐으로 연구참여자의 생애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심층 면담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들에 대해 추론이 가능하며, 개인의 생애 과정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와의 뒤얽혀 있는 구조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생애 과정의 사건들과 연결된 사회적 세계와 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간은 1회에 약 3-4시간 정도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담 후 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연구 참여자와 여섯 차례 이상의 전화면담이 이루어졌고, 네 차례 이상의 이메일을 통해 추가적인 질문지와 답변을 주고받으며 면담자료를 보충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연구참여자의 축어록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Mandelbaum이 제시한 3차원 분석틀인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삶의 영역에서는 연구참여자 생애 전반의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는데 바탕이 된 개인적 사회적 요건들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였고, 전환점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전 생애에 있어 큰 전환점과 그 전·후의 사회적 조건을 분석했다. 적응에서는 세월호 사건 전과 후를 나누어 연구참여자가 삶을 살아내는 대처방식에서 나타난 사회적 상호작용과 적응 태도를 분석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수차례의 분석 작업을 통해 각 차원별 주제를 도출했다.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엄격성의 확보를 위해 다수의 질적 연구 논문을 게재한 상담전공 교수 1명, 생애사 연구 경험을 비롯하여 상담 심리학 박사 1명, 상담 심리학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4명의 연구자들이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서 연구 내용에 대한 토의를 거쳐 연구 주제 선정 및 내용 구성을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석 및 기술 후 연구참여자에게 내용을 보내어 검증을 받는 절차를 2회 거쳤다. 또한 생애사 및 다수의 질적 연구 논문을 게재한 사회복지학 박사

1명에게 자문 및 감수를 받았다.

연구참여자의 생애사 요약

연구의 윤리적 문제

한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 및 개인적 행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하는 생애사 연구 특성상 개인정보가 드러나기 쉬우므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 진행과정상의 윤리적 절차가 필요했다. 본 연구는 연구시작 전,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인터뷰 과정 중이나 축어록 분석 과정 중에, 또는 원고작성 과정 중에 언제라도 연구참여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표기 될 것이며, 본 연구목적 이외에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녹음과 축어록 내용은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연구 참여 동의서 및 확인서를 받았으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도 서명하여 전달하였다. 인터뷰 도중 과거의 경험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받을 경우 요청 시에는 정신건강 및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인터뷰 시작 전에 전달하였다.

결 과

다음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생애사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 난 후 Mandelbaum (1973) 생애사 분석틀에 따른 분석을 전개한다.

연구참여자는 면접 당시 58 세로 부유한 집안의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가 태어난 지 3주 만에 교사인 아버지가 사고사로 돌아가시고 그 이후 가세는 지속적으로 기울었다. 연구참여자의 어머니는 남편 없이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장사를 하느라 항상 바쁘셔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진 못했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집안 아주머니들이 채워주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민했던 연구참여자는 지방의 명문 여중,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 후 24살부터 교편을 잡았다. 그리고 26살에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편과 결혼하여 1남 2녀를 낳았다.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큰 아이가 5살 되는 무렵 의료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후 슬픔 속에서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대학원 졸업 후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고 막내아들을 낳았다. 남편의 직장으로 인해 안산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심리 상담에 참여하게 된 것이 상담의 시작이었다. 그 이후 심리상담을 소명으로 삼아 지금까지 활동 중이며 현재는 안산시에 위치한 정부부처 산하 상담관련 기관의 책임자이다. 2014년, 온 나라에 슬픔과 충격을 안겨 준 세월호 사건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지역민으로서, 세월호 사건 피해자 상담에 1년여 넘게 참여한 상담자로서, 지역사회 정부부처 산하 심리상담기관의 행정 책임자로서,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과 같은 나이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서, 자녀의 친구와 친구의 자녀를 잃어 가슴아파했던 간접적인 피해자로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였다.

생애사 분석

연구참여자가 구술한 자료는 Mandelbaum (1973)이 제시한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turnings), 적응(adaptation)의 3가지 차원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사건들은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에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구술된 자료를 통해 도출된 생애개념들을 이 세 가지 개념 틀 안에서 주제로 묶어 범주화했다. 연구참여자의 생애에 나타난 주제의 범주화와 개념화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삶의 영역

삶의 영역은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생물학적 영역, 개인의 문화에서 기대되는 행

동과 역할을 제공하는 문화적 영역, 개인 고유의 사회적 행동의 선택들을 아우르는 사회적 영역,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심리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참여자의 삶의 영역은 「자아상을 형성한 어린 시절」, 「동화 속 결혼」,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슬픔 속에서 한 발 내딛기」, 「상담자의 길」, 「반듯하게 자란 자녀들」, 「세월호 사건」으로 범주화되었다.

자아상을 형성한 어린 시절

존재가치 증명하기. 연구참여자는 태어나지 3주 만에 학교 선생님이시던 아버지가 소풍을 갔다가 추락사로 돌아가시면서, 조부모에게는 귀하디 귀한 아들을 잃고 양육의 책임만 새까맣게 남겨진 탐탁치 않는 손녀였다. 또한 딸보다는 아들이 환영받던 시대에 셋째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상을 형성한 어린시절 - 존재가치 증명하기 - 본보기가 되는 주변인들을 통해 형성된 높은 이상 - 기울어가는 가세로 인한 심리적 위축 • 동화 속 결혼 •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 슬픔 속에서 한 발 내딛기 • 상담자의 길 • 반듯하게 자란 자녀들 • 세월호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앞에 놓인 죽음 - 부재 :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의 죽음 - 상실 : 너무도 아픈 상실감을 준 남편의 죽음 - 내 자식 같은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 • 삶의 이정표, 상담 - 상담과의 만남 - 상담이 필요한 애도 - 세월호 사건 이후 상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사건 이전: 부재와 상실에 대한 적응 - 부재와 상실의 대상에 기대했던 역할을 내가 이어나가야 한다. - 타인의 재능과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든다. - 아버지의 자리를 채운 종교 • 세월호 사건 이후: 가슴으로 품은 노란리본 - 죽음에 직면한 실존적 태도 - 살아남은 자들의 애도 -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상담자

그림 1. 세월호 사건을 경험한 상담자의 생애에 나타난 주제의 범주화와 개념화

딸로 태어나 눈칫밥을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터득하고, 사내아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했으며 식구들을 웃기기 위해 코메디언 흉내를 내기도 했다. 이는 훗날 연구참여자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절망에 빠져 있기 보다는 어떻게든 헤쳐 나가려는 성향을 가지게 된 뿌리로 해석 될 수 있다.

양쪽 가문, 우리 외갓집은 한의사 집안 이었고 우리집은 그 고을에서 잘사는 집안 이었는데 장남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문이 울음바다가 됐겠죠. 거기에서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홀대를 당했나 싫어요.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난 어렸을 적을 보면 굉장히 영리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살려고 책을 한 권 다 외워서 웃긴다던지 해서, 5, 6살 때부터 내가 우리집안 식구들을 웃겼던 게 생각이 나요.

연구참여자는 영리한 행동 뿐 아니라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가족들에게 귀여움을 받게 되었지만 1950년대 시골의 남아선호사상, 남성 중심 사회구조의 인식을 가지고 있던 집안 어른들은 연구참여자가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겠다며 아쉬워하는 소리를 연구참여자에게 지속적으로 하였다.

우리 할머니가 너가 고추만 좀 달고 나왔으면, 우리 할머니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본보기가 되는 주변인들을 통해 형성된 높은 자아상. 어렸을 때부터 학업에서 두각을 보였던 연구참여자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칭찬과 기대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높은 자존감을 형성 하였다. 그리고 생업으로 바빴던 어머니의 부재시 같은 동네의 집안 아주머니들 집으로 놀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집안 아주머니들은 연구참여자에게 늘 칭찬을 해주어 연구참여자의 기개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심리적인 지지 세력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집안 아주머니를 '반 엄마'라고 표현하였다.

우리엄마가 없을 땐 옆집 집안 아주머니, 집안의 큰 아주머니, 작은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우리들을 잘 돌봤고 (중략). 가면 우리 아주머니가 항상 너는 왜 이렇게 영리하냐 너는 왜 이렇게 이쁘냐 맨날 그랬지. 항상 칭찬해줬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분들이 받은 엄마였네. 그래서 그때 내가 자존감이 엄청 높은 애였어요.

연구참여자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집안 큰 아주머니를 보면서 여자도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과 경제적 풍요로움에 대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으며, 학교 선생님들의 학문적으로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슨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과 학문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주변의 사람들의 장점을 본인에게 잘 흡수하여 적용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를 통해 높은 이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는 연구참여자가 목표, 목적 중심의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분들은 전문가적 자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음악선생님은, 음악에 능통해. 매력적일 정도로. 뭐 영어선생님은 영어에 능통해. 네이티브 랭귀지 막 해. 그러면서 학문에 대한 욕구를 심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죠. 그런 모습을 닮고 싶었어요.

기울어가는 가세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연구참여자의 가정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져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지역의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연구참여자는 학교 친구들의 부유한 집안 환경과 기우는 자신 집안의 가세를 보며 상대적인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생각했을 때 가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을 스스로 접게 된다. 어렸을 때는 판사, 의사 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탄탄한 직업들을 희망하였지만, 어머니의 권유대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사를 선택했다.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집안이 망해 간다 해도 아주 그냥 기개가 살아가지고 ○○여중을 갔는데, ○○여중 가서보니까 낯고 기는 ○○지역의 가문 좋은 애들이 오니까 내가 조금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이... 제가 어렸을 때 꿈은 내가 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동화 속 결혼

연구참여자의 어머니는 '여자는 결혼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참여자의 성장과정 중에 종종 말하면서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본인이 딸 셋만 데리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꿈을 자꾸 심어주시더라고.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는 대학 때 사귀던 남자친구와 26살에 결혼하였다. 남편은 좋은 집안에,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연구참여자는 대학졸업 후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으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나서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교직을 그만두게 된다. 그리고 아들 한명, 딸 두 명을 낳아서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첫 애 낳고 교사를 관렸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보니까 이 까짓 거 교사해서 뭐해 이제 그런 생각을 한거지. 그렇게 하고 교사는 또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애를 제대로 키우자. 이제 신랑이 버는 수입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불편하게 살지 말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남편과 아이들을 잘 키우며 경제적 풍요, 사회적 명예를 다 갖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연구참여자는 첫째 아들이 5살 되던 해, 남편을 갑작스레 잃게 되었다.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료사고로 어이없이 남편의 죽음을 맞게 된 연구참여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결혼은 엄마 비위를 맞추느라고, 엄마는 일찍 가라는 말은 안했지만 내가 최고로 젊고 그럴 때 남편을 끌어야 하나까... 줘

은 생각이지만,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한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30살에 죽었어요.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가 우리 아버지가 사고사로 죽은 것처럼 그 남편이 그렇게 해서 죽으니까... 내가 막 많이 힘들어 하고... 정신도 없고...

남편이라는 기댈 수 있는 존재의 부재는 연구참여자를 끝없는 절망으로 몰고 갔다. 시댁 부모님은 연구참여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었고 '남편 잡아먹었다', '너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라고 하면서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당시 연구참여자는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사망소식을 듣고도 자신의 슬픔이 너무 커 타인의 슬픔을 함께 하지 못할 정도였다.

KAL기 폭파 내가 5월에 그랬다면 김현희 그건 9월 10월 그 정도 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슬픔이 얼마나 크냐면 그 칼 사건이 나도 남들은 큰 애도를 하는데,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잣말로 '그런 건 별로 슬프지 않아, 내가 더 슬퍼' 그리고 오히려 남의 죽음이 나에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 시기였어요

슬픔 속에서 한 발 내딛기

남편의 부재와 그에 대한 시댁의 원망으로 연구참여자는 절망 속에서 몇 년을 보냈다. 그 때 연구참여자가 다시 자립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도록 도와준 것은 어머니의 지지와 종교였다. 어머니도 연구참여자와 비슷한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이들을 키워 왔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은 딸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였다. 어머니는 연구참여자가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를 통한 심리적 지지, 아이들 양육을 함께 지원 해주는 생활적 지지를 해주었다.

친정엄마는, 내가 오늘날 내가 있었던 건 친정엄마 때문이야. 우리 친정엄마는 참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자기가 그런 거도 겪었으니까 딸아이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남편 잡아먹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내게 걱정하지마. 앞으로 다 잘 살 수 있어 말하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똑같이 그런 걸 겪었는데 딸이 잘 살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이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여러 번 그 소리 하더라고. 잘 살 수 있어.

어머니의 지지와 함께 종교도 남편을 잃은 연구참여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연구참여자는 그 당시 자신에게 하나님이 상담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남편 사별 이후에 교회에 지속적으로 매달렸죠. 그러니깐 결국은 그 때 신앙 생활하면서 나름 상담자가 하나님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때에는 내가 상담자의 길을 갈거란 생각도 못했었지, 내 어려움이 있었으니깐, 그거의 돌파구고 하나님이었죠.

연구참여자는 상실의 아픔에 빠져있던 시기가 상담자로서 교육 받은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죽음으로 인한 깊은 상실과 슬픔에 빠져 아픔 속에서 지낸 시간들이 나중에 세월호 사건 후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알고 대처할 수 있게 해준 교육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 시점이 그 짧은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인간적인 자질을 몸소 체험하고, 어려움에 동참해 보는 시기였죠 그 당시는.

상담자의 길

연구참여자는 남편과의 사별 3년 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서서히 삶의 방향을 잡아갔다. 남겨진 세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해 힘을 내어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 결혼을 잘해서 남편의 보호 속에서 안전한 삶을 꿈꾸었지만, 고통과 좌절을 통해 더 단단해져서 홀로 서게 되었다.

옛날에는 남편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그게 어머니가 준 결혼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나혼자 가족을 이끌어야 한다는게 용기가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한 2, 3년간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 상황에서 정신차리고 정면돌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살려니까 해지더라고요. 살려니까. 그래서 제가 정면 돌파를 한거죠.

대학원 졸업 후 지인의 소개로 현재 남편과 재혼을 하면서 안산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 막내아들을 두게 되고, 남편과 함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심리 상담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심리상담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상담공부를 계속하며 안산에 위치한 정

부부처 산하 상담관련 기관 책임자가 된 연구참여자는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면서 인생 전반부에 가졌던 경제적인 부와 명예 성취에 대한 목표에서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목표로 전환하게 되었다.

내가 상담자가 되기 이전에는 말하자면 세속적인 인생의 목표들에 최대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 했었던거 같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돈이면 돈에 최대한 접근 해야 되고. 뭐.. 미모면 미모. 그리고 또 뭐 하고 사는 집안의 정도 씩씩이. 이런 거에 최대한 접근하는 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상담자가 되고 부터는 아니죠. 마음의 행복이죠.

그러나 연구참여자는 마음의 행복, 내면의 욕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실제 삶 속에서는 기관 책임자라는 역할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돌보기도 하는 업무, 일에 집중해야만 했다. 연구참여자는 기관책임자으로 재직하는 시간을 현장에 완전히 투여되는 시기, 기관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라고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기관책임자이 되기 이전에는 상담자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는 시기라고 한다면 기관책임자이 된 이후에는 안산 지역의 심리상담 기관에서 안산 지역 주민에게 상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고 안산지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 활동에 힘쓰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때는 다른 책임자는 주어진 상담기관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

는 기관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지역사회에서 상담 기관이 할 일이 너무 큰데 지역 행정기관에 눌러가지고 발전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기관을 키우기 위해 행정기관에 계속 요구하고 정부에서 하는 각종 사업도 일차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시했죠.

반듯하게 자란 자녀들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 큰 아들은 판사, 둘째 딸이 교사, 셋째가 치과의사이다. 연구참여자는 이 직업들이 본인과 죽은 남편이 가졌던 꿈들이라고 말했다.

우리 남편이 공대 계통이지만 옛날에 그 고시에도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이제 한 길로 가니까 못 갔지. 그래서, 고시는 그 남편이 원래 남편이 첫 번째 가졌던 꿈이었기 때문에 했었고. 의사는 우리 남편이 그 병원에서 아픈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의료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를 의사를 만들어서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교사는 그냥 애가 나 따라서 교사 된 거야.

세월호 사건

작년 연구참여자가 살고 있는 안산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세월호' 라는 큰 사건이 터졌다. 연구참여자는 안산지역 내에서 청소년 상담을 20년간 진행하고 있었으며, 세월호 사건 이후 안산지역 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안산시민 등에게 상담으로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센터에 속한 다른 상담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고군분투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안산지역 사회가 전체적으로 슬픔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난장판이죠. 세월호 사건은 삶의 그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제 친구 하나는 세월호로 애를 잃은 엄마랑 아주 친했어요. 제 친구 아들이랑 세월호로 죽은 아들하고도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개가 죽었잖아요? 제 친구 아들은 학교를 자퇴하고 캐나다 유학을 갔어요.

내 자녀를 잘 기르다가 하루아침에 그 자녀를 잃은 일을 생각하면...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자녀가 자기인생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죠... 엄마로서의.

전환점

생애사 연구에서 전환점은 Mandelbaum이 제안한 대로 개인의 삶의 주요 전환점 및 이를 전후한 사회적, 개인적 조건을 분석한다. 이 작업은 연구참여자의 전 생애 걸쳐서 이루어지며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전환점은 「생 앞에 놓인 죽음」, 「삶의 이정표, 상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생 앞에 놓인 죽음

연구참여자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세 번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다. 생후 3주 후 아버지의 죽음, 결혼 5년 후 남편의 죽음, 세월호 사

건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죽음이다. 세 죽음의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 연구참여자의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이었다.

부재 :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의 죽음. 연구참여자가 생후 3주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은 연구참여자의 삶에 큰 빈자리를 남겼다. 연구참여자는 이를 채우고자 평생 뒤편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마치 아버지의 부재가 자신의 책임이라도 되는 듯 애를 썼다.

장날 갔다 오다가 우리 아버지 묘지예요. 나를 데리고 가서 울고 한참 울다가 내려오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내가 우리집의 그 역사적으로 아픈 것들. 기억하면서 어렸을때 내 배경이 엄마, 엄마나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라면 할려고 했어요. 애가 애답지 못했죠.

상실 : 너무도 아픈 상실감을 준 남편의 죽음. 남편의 죽음은 연구참여자에게 아버지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아버지의 존재는 있다가 없어진 존재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있지 않았던 존재로 그 죽음이 남긴 것이 결여(lacking)였다면, 남편은 있다가 없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심정은 남편을 잃은 깊은 상실감(losing)으로 아픔과 슬픔 속에 침잠했다.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은 “‘없다’고 생각된 대상의 관념 속에는, 같은 대상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의 관념보다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들어 있다”고 하였다. ‘없다’라는 것은 ‘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없음’에 직면하여 당혹감과 비통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연구참여자에게 남편은 빛나는 현재와 미래를 의미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소중한 존재의 상실은 부재로 인한 결여감보다 헤아리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고사로 죽은 것처럼 그 남편이 그렇게 해서 죽으니까 내가 막 많이 힘들어 하고 정신도 없었어요. 그 때 내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죠.

응.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엄청 많이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람.. 마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사라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된다는 걸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그 때는 없었어요.

내 자식 같은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 세월호 사건 당시 연구참여자는 자신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막내아들의 친구의 죽음, 지인의 아들의 죽음, 센터 관계자의 딸의 죽음 등 바로 옆의 사람이 연속적으로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으며,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 및 간접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세월호 사건으로 친구를 잃거나 자식을 잃은 내담자들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분노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는 내담자와 같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마주했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들에게 힘이 되고

자 애썼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세월호 사건이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며, 세월호 사건을 상담자로서 자신을 성장시킨 ‘약’이라고 표현하였다. 죽음은 삶과 공존되는 것이며, 죽음을 삶에서 품을 때 삶이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이다.

세월호가 나한테 약이 되었죠.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 본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상담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보고... 죽음 앞에선 누군가는 아파서 힘들죠. 근데, 누군가는 그 죽음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인간사가 다 그런 거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삶의 이정표, 상담

상담과의 만남. 연구참여자가 처음부터 상담자가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학 졸업 후 교사생활을 할 때 학생들의 집에 가정방문을 하었는데, 각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려운 학생들을 보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연구참여자는 인터뷰 당시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상담자로서의 시작이라고 회상했다.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가정방문이 있었어요. 가정방문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애들이 있더라구. 개들이 학교 올 때는 별로 몰랐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돌봄이 안되는거야. 그때 내가 애들이 이렇게 어려운 애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애네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애네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또한 연구참여자는 정부부처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상담을 시작하면서 상담의 필요성과 상담자로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에 적용하지 못하는 청소년 상담을 통해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결국 가정 내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을 발견한 연구참여자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도움을 받았더라면 더 성장할 수 있었을 자신의 모습, 자신의 욕구보다는 가족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온 모습을 투영하면서 청소년 상담자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서적을 통하여 공부하고 개인 상담을 받는 활동을 통하여 기본적인 상담자의 태도와 상담 기법들을 익혔다. 연구참여자가 정부부처 산하기관 상담을 시작할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에서 상담에 대한 인식이나 학문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있는 시기가 아니었고 특히나 연구참여자가 상담을 시작했던 지역에서는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다시 옛날 가정방문에 대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거죠. 내가 교육학을 할 때만 해도 상담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담이라는 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상담 공부 막 시작할 때 우리 나라에 상담 막 들어왔을 때예요. 그 때만 해도 이게 새로운 분야구나 했지, 내가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못했었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아...다시 떠오른거죠., 상담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애들한테 잘 하기 위해서는 공부 좀 해야겠다.

또한, 상담을 '키움'의 과정이라고 표현하였다. 상담을 통해 성장 방해요소를 덜어내고 좀 더 훌륭하게 청소년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영리하게 태어났어도, 키움이라는 것을 제대로 못 받으면 제대로 클 수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영리했지만 생활사를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더 클 수 있는 부분을 못 컸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상담자가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게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상담이 필요한 애도. 남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연구참여자는 어떤 방식의 애도가 상실을 다루고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지 알려주는 안내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에 대한 충분한 애도보다는 죽은 사람을 빨리 잊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흔적을 서둘러서 다 치워버리는 전통적인 애도의 방식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는 충분한 심리적 애도를 하지 못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애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훗날 상담자가 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동기, 전환점이 되었다.

내가 첫 남편 죽었을 때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잊어야 된다. 그 사람 물건을 다 치워야 된다. 그거는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하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하더라구요. 내가 그래서 막 그 사람의 물품을 다 정리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 그게 오류였어요. 그게 오류. 지금 생각하면 그

렇게 서둘러서 치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친정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했던거야. 그래서 막 그 진짜 내 마음에 굉장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치우는 속에서 꿈이 더 작아진거지. 근데 내가 혼자 내 인생의 목표를 혼자 간다고 생각한 거가 지우면서 혼자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일을 당했다면 절대 안 지워요. 같이 가면서. 남편은 죽었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더 잘 갈거야. 더 잘 갔을거 같애. 그때는 내가 눈을 감고 장님처럼 더듬으면서 나의 인생을 헤쳐 나갔던 거예요. 그 땐 혼자 하다가 누가 상담자도 없이. 근데 지금 이라면 그래서 상담자가 필요하단 거야.

혼자 해야 된다. 이게 내가 갖고 싶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하라고 한다면 나는 해야 된다. 근데 헤쳐 나갈 용기를 얻기 위해선 힘이 들잖아요. 그럴 때 상담자가 용기를 줘야 되겠지. 혼자서 하기 힘들니까. 그럴 때 상담자가 자꾸 도와주면 빨리 거기에서 헤어 나올 수가 있죠.

세월호 사건 이후 상담자. 세월호 사건이 난 후 혼돈 그 자체인 당시의 상황에서 참여자는 그 지역의 상담관련 기관 책임자로서, 또한 상담자로서 슬픔에 빠져있는 지역과 개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의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대책 수립 정례회의 참석, 학교 상담 투입, 개인 상담 등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혼돈에 동참하였다. 하지만 넘어설 수 없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들에 부딪치면서 울림 없는 메아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상담자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답답한 거죠. 전체적인 기분은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리고 또 쪼끔... 답답함 속상함. 왜 이런 일을 우리 지역이 당했을까? 하든 우리 안산이 안산 사람들 마음대로 못하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그분들의 타당성을 위해주는 어떤 조건으로 사용되는 거 자체가 속이 상했구요. 그런 것들은 비밀 비재했어요. 자기 지역사회를 정치 중심에서 홀드하는 걸 보고, 그 우리 시는 모두가 다 아마 자존감이 실추가 됐을꺼예요.

세월호 사건 나고는 인제 이게 내 목표이지만, 우리 상담자들이 사회에 공헌을 하는 길이 있다는거를 그 때 알은거지. 사회공헌을 내가, 상담자들이 해야 한다 생각 한거죠. 지금은 아직도 멀었어요.

적응

Mandelbaum(1973)에 따르면 적응은 개인의 고유한 적응양식으로 전환점을 맞이하였을 때 어떤 대처를 통해 자기를 발전시켜 나갔는지 분석하는 것인데 ‘발전’, ‘대처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사건 이전과 세월호 사건 이후의 적응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세월호 사건 이전 연구참여자의 전반적인 삶의 적응 양식을 살펴본 후 세월호 사건 이후 연구참여자의 삶의 적응 양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전: 부재와 상실에 대한 적응

부재와 상실의 대상에 기대했던 역할을 내가 이어나가야 한다. 연구참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하고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영특함을 보였다. 연구참여자의 가족들은 특별한 지원 없이도 혼자서 잘 해나가는 연구참여자에게 ‘집안의 자랑’이 되기를 기대 하였고 그것은 연구참여자가 대학 진로를 정할 때 연구참여자가 아버지의 직업을 잇기를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집안의 자랑’이었던 아버지의 부재를 연구참여자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직업인 교사를 연구참여자가 잇기를 바랐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또한 아버지의 부재를 본인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보다는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의대를 갈까 사대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엄마가 자꾸 사대를 가라고 하더라고. 아버지도 선생님이었으니까 너도 아버지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대로 갔죠. 근데 그거도 꿈 선택이 지금 생각해보면 좋지 못했었어요. 나는 내 친구들은 다 의대야 내 친구들은 다 의사들이야 선생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과 부와 명예에 대한 꿈을 같이 꾸던 남편에 대한 기대는 남편과의 사별로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되었으며,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된다. 깊은 슬픔에 빠

져있던 연구참여자는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지지와 심리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종교로부터 위안 받으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남편의 상실은 삶의 의미의 상실이었지만, 남겨진 연구참여자는 자신과 자녀, 가족, 그리고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남편의 몫까지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어머니, 친정 엄마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다시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둘이 가졌던 인생 목표를 혼자 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내가 많이 울었죠. 둘이 가면 수월할 것을 혼자 가려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나름대로 갔어요.

타인의 재능과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든다.
연구참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사람들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은 경계하면서 배우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성경 속 인물 모세의 예(출애굽기 18:13-27)처럼, 연구참여자는 타인의 재능과 지혜를 습득하여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우는데 능하였다. 이러한 점이 연구참여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어머니는 바쁜 삶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힘든 내색하지 않고 자녀들과 대면할 때 만큼은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연구참여자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으며, 본인도 남편을 잃고 자녀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그건 우리 어머니. 그게 다 그게 엄마한테 배웠어 이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척박한 젊은 시절을 살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못봤어요. 어머니가 우시는 걸 한 번도 못 봤고. 물론 뭐 장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집을 비우시긴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깔끔한 엄마로서의 모습, 며느리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의 뒷면에는 험한 것이 있을거지만 그래도 항상 잘해야, 좋은 면을 보여야 된다는 거가 엄마로부터 물려 받은거 같아요.

또한, 연구참여자는 집안 아주머니들의 경제력과 넓은 도량을 본 받으려 했다. 하지만 건강은 챙기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아 여자가 돈을 탐하다 보면 몸을 안 돌보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실 수 있다.' 라며 자신의 건강을 평생 잘 챙겨왔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는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전문가적인 모습은 본받고 인간적인 단점은 경계하는 영리함을 가지고 있었다.

체질적으로. 욕심이 아니고 그런게 보여요. 그 사람 단점이 있으면 단점부터 불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 봐 미술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단점이 있지만 그림은 정말 잘 그려. 뭐 이런 것들. 영어선생님 같은 경우도 성격은 별로 안 좋아 근데 영어는 찰찰 잘 나와.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저는 했어요. 긍정적인 평가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그걸 꼬집어 내릴려고 하진 않은 그런 거?

아버지 자리를 채운 종교. "신은 죽었다"

고 말한 니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병약하고 무력한 아버지였다. 심리학과 기독교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폴 비츠(Paul Vitz, 1935-)에 따르면, '결함 있는 아버지 가정'이 근대 서구 사상계를 주도해 온 유명 무신론자들의 가정 배경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부재, 무기력, 죽음, 학대에서 유발된 트라우마와 결핍이 하나님 이미지를 왜곡시켜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불신앙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니체가 하나님과 기독교를 거부한 것은 병약한 아버지에 대한 거부라고 이야기 한다.

연구참여자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상이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연구참여자가 왜곡된 아버지의 상을 하나님에게 투사할 가능성을 낮춰주는 동시에 현실에 실제하는 크고 작은 '결함 있는 아버지'를 가진 다른 사람보다 더 이상적인 -더 능력있고,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자이자 안식처인 - '하나님 아버지'를 갖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죽음으로 인한 아버지와 남편의 상실을 경험한 연구참여자에게 죽음을 뛰어 넘는 영원불멸한 존재인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어려운 현실을 극복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다.

하나님은 안식처인데 무한한 능력자로서 안식처지, 그래서 내가 그 분하고 친하고 그 분 맘에 들면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했죠. 어렸을 적 나는 아버님이라는 커다란 상실을 했잖아요. 그니까 아버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뭔가 기회를 주고, 큰 보살핌을 주는 분으로 형상화된, 현실적인 인물이지 않아요. 그 인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대신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나한테 그런 걸 주실꺼라고 굳게 믿었어요. 어렸을 때, 참 순진 무구했죠. 그랬었죠. 그래서 안식처인데, 조금 더 능력있는, 뭔가를 가만히 있는 안식처로서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큰 안식처라고 생각한거죠.

연구참여자는 어린 시절 경제적 한계에 부딪치며 장래희망이 현실에 맞추어 작아지고, 풍성하게 빛나는 미래를 같이 꿈꾸던 남편의 죽음을 통해 좌절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럴 때 마다 종교는 심리적 안식처를 제공하고 충분한 애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며 힘이 되었다. 또한 유한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을 맞지만, 영원불멸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죽지 않고 연구참여자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는 변하지 않는 기반이었다. 연구참여자는 고난을 딛고, 폐허 속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종교를 통해서 가질 수 있었다.

그 때 거의 매주 마다 교회가 정해놓은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갔었어요. 나는 자발적으로 갔죠. 산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거예요 바로. 안식처, 위로감, 그리고 앞날에 대한 비전, 나는 내가 죽은 뒤에 천국을 가기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정말 해결이 안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퍼즐 맞추듯이 미디하고 연결시켜서 맞출 것인가 대한 해답을 그 때 얻었다고나 할까? 뭐 다 얻지는 못했지만, 얼마간 해소가 되면서.

세월호 사건 이후: 가슴으로 품은 노란 리본

죽음에 직면한 실존적 태도. 내 자식 같은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은 이제까지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아버지의 부재와 남편의 상실과는 다른 주제였다.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객관화되면서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경험을 했다. Kierkegaard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인간 일반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며, “나도 역시 죽어야 한다.”(I, too, must, die)라는 사실을 통해 죽음이 구체적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하였다. 죽음이 삶 속에 공존함을 느껴야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죽음의 의미에 직면하였으며,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와 방향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실존주의적 인 통찰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전에도 나는 욕구 중심으로 나간다고 내 뒀에는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욕구다 목표다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 삼분의 이 정도는 욕구, 삼분의 일 정도는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렇지만, 내 삶이 잘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세월호 사건 딱 터지고예요. 그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을 보면서 이게 어찌면 나의 삶일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인생의 점검이 또 한 번 필요해 그랬던거죠.

Frankl은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라는 저서에서 죽음은 인간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일 불멸성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행동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취하는 행동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Frankl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도 세월호 사건 후 죽음을 삶 속에 공존시키면서 더욱 현재의 삶의 의미와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의 삶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게 된 연구참여자는 죽음 앞에서 현재의 남은 삶이 짧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외부의 가치, 남의 눈에 보이는 잘 사는 삶에 대해서 가치를 두었던 목적 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현재의 삶, 즉 나의 욕구에 충실하는 삶의 태도로 전환하였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받지 않았던 마사지를 받고 규칙적으로 운동, 사우나를 하는 등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다.

저는 그 때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삶도 점점 해봐야 된다. 나도 남이 보기에 핑장히 잘사는 사람.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산다고 했는데, 내 가정과 자녀들한테만 너무 맞춘 게 아닌가. 내 개인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현재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바라는 역할이 있었으나 그 모습대로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경제관념이 부족한 남편, 학업적 성취에 관심이 없는 막내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려는 큰 아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바라는 역할을 해내기를 원하였던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 가족의 욕구와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다. 가족이지만 한 개인으로 인정하고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립된 주체로서 인정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 남편에게 더 이상 경제적으로 서운해 하지 않고 막내아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큰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다.

막내아들의 진로도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막내아들이 그전에는 사이는 좋은데, 항상 아들 보면 애들은 음.. 공부를 왜 저렇게 밖에 못할까~ 이랬거든(웃음) 사이는 좋은데, 사이가 좋다. 공부를 못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진로를. 그래, 니 좋은데로 가고, 진로가 뭐, 꼭 대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니가 각성하면, 그때 니 진로를 향해서 가. 그러면 엄마가 또 도와줄테니까. 이래서 대학 진학이 편안해졌죠.

네...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걸 제가 정말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큰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반대를 하던 입장이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현재 결혼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죠.

살아남은 자들의 애도. 연구참여자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떠난 자에 대해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는 이성복 시인이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처럼, 자신의 불행과 슬픔을 이야기하게 되면 고통스런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게 되고, 그 순간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은 장례식에서 곡을 하는 민족이며 소리 내어 슬픔을 말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으며, 특히 상담자들이 그 슬픔을 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슬픔에서 빠져나가... 아니면 자살을 할지라도... 빠져나가요. 이렇게. 혼자 개별작업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내가 막 슬프면 옆에 사람한테 전이도 시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때 안정이 돼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옆집사람 들으면 안 되지. 그걸 상담자가 껴안아야 되는거지.

연구참여자의 경우 그녀가 경험한 죽음의 장면들을 통해 진정한 애도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 그 동안의 깨우침을 정리하여 상담자로서 슬픔을 겪는 유가족에게 적용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죽은 자는 죽은 자 대로, 산 자는 산 자 대로의 삶이 있으며 산 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삶과 죽음의 공존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애도의 방법은 죽은 자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전통적인 애도와는 다른 방식이다. 연구참여자 막내 아들의 친구

가 세월호 사건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 막내아들이 죽은 친구를 떠올리며 마음 아파 할 때 연구참여자는 공존을 통한 애도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월드컵 축구도 못봤어요. 그때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고 너는 월드컵 축구를 보고 싶냐? 그럼 너는 축구를 봐야지. 그랬죠. 그랬더니 보면서 OO이라고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OO이도 축구 참 좋아했는데. 그러더라고...산 사람은 미안하지 않게 살아야 하거든 평상시에, 이게 죄의식의 일종이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죽은 사람들과 공존해야 하는거죠 우리가. 계속 공존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될 때까지가 치료죠 완전히, 그때까지 가야돼요.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죽은 아이들을 무조건 빨리 잊고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무조건 빨리 잊는 것이 좋은 애도가 아니라 공존을 통한 애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리 내어 많이 울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내가 인제 세월호 희생자의 아버님들 어머님들하고도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자녀를 잊어야 된다고 옆에서 하니깐 아직은 잊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공존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죽은사람과 산사람이 공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그게 전혀 없어요. 자녀는 없는데 어떻게 공

존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아니야 그래도 공존해야 돼. 공존할 수 있어. 개넨 이제 없잖아. 없지만 개의 문화 개의 물품 이런 것들은 조금 보관해야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없애. 개가 나한테 허는 얘기를 내가 매일같이 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깐 눈이 반짝이더라고. 옆에 사람 다른 사람들은 빨리 잊어라 개 물건 다 치워라. 막 빨리 치워라. 치워야 잊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전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내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 아저씨 자녀가 세월호로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애의 여행 가방을 해경이 진도 앞 바다에서 찾아서 하나 건져다 줬대요. 가방이 물속에서 반쯤 썩어서 온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면서 엄청 울었다는거야. 그래서 그럼 울어야지. 그거 안울으면 사람이 아니지. 근데 이분은 엄청 울어야 된다는 것도 몰라. 울면 안 잊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아니야 충분히 애도를 해야해. 많이 울어야지. 막 영영 소리나게 울어야지. 그거 전환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고 아픔을 얘기하고 나서야 소중한 존재가 없어진 인생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참여자는 상담 시 내담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위한 제 3의 곡선을 그리게 하고, 삶과 죽음의 그래프도 그려보게 함으로써 죽음 앞에서 현재 삶의 가치를 찾아내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제 3의 곡선은, 음.. 그 내, 내 인생에 원래 가졌던 선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불

현 듯 생겼을 때 다시 가야되는 곡선. 결코 원래의 곡선만큼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밑에 있죠. 그걸 그려야 돼요. 그걸 그리도록 도와줘야 되는거죠. 그걸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죽은 자나 산 자나 그려야 아름다우니까. 죽은 자들도 사실은 내가 울면서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3의 곡선을 그려야 해요.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상담자.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을 하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전까지는, 상담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 등의 상담자 개인의 소명을 달성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는 못 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누구에게나 재난은 찾아오고 상담자는 재난을 맞이한 사람을 인도해주어야 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인도자 역할의 상담자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는 개인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으로 사회공헌의 역할을 상담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하고 관련이 있는 가까운 사람, 자녀, 부모, 형제, 연인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럴 때 이게 곧 국가적인 재난은 아니지만, 한 개인한테는 재난이거든요. 이 때 상담자들이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잘 들어가고, 분명히 그들의 삶이 재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재정립이 얼마나 잘 되게 도와주느냐 이게 상담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커다

란 일인데, 우리 상담자들은 학문으로서의 상담은 잘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 부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나는 이걸 깨달은 거죠. 나는 이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상담이라는 도구로 사회 공헌을 해야 돼요. 그럴려면,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이런 일에 개입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려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상담자로서 이런 시스템 갖추어졌음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세월호 끝나고 느낀거죠. 그런데 역으로, 상담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배운거 그대로 가지고만 있어. 현실 접목을 못 시키고 있어. 이러한 안타까운 말도 내가 외마디처럼 한 거죠.

세월호 사건의 직, 간접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많은 상담자들이 소진 하는 것을 발견한 연구참여자는 아직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담자들은 먼저는 자신을 객관화 시켜 자신의 문제부터 치유하는 조망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상담자의 자아 존중감의 필요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가 정의하는 자아 존중감이란 자신을 조금 높은 곳에 두고 높아진 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자신을 아끼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함, 자신의 내면을 챙기는데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면도 돌봐줄 수 있는 것이지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돌보지도 못하는 상담자는 고통 속에 있는 내담자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정서관리를 잘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죠. 내 일에 대해서도 얼른 객관화를 찾을
줄 알아야지. 지극히 주관적이기 쉽잖아요
내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객관화를 빨리
빨리 찾아와야 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왜 객관화를 찾아야하나면 시간은 자꾸 가
잖아요. 우리의 그 마인드, 아픔은 시간이
가면 사라지는데 주관적일때는 그 아픔이
최고인줄 알잖아요. 빨리 그 상태에서 이
거는 내일가면 좀 괜찮아질 수 있어 이게
객관화거든. 얼른, 조망이라는 말하고도 비
슷해요. 얼른 객관화할 줄 알아야 되요. 내
일이지만 나를 좀 떨어져서 보는 게 객관
화죠.

자서전.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생애에 대해 요약하고 현재의 삶에 대
한 평가를 직접 기술한 것이다.

나의 출생 이후의 생존환경은 누구보다
협약했다.

출생 3주 만에 기대의 아버지는 사고로
사망하고 난 그 슬픔을 당연히 몰랐다. 죽
은 아들을 생각하며 기회만 나면 우는 할
머니를 보는 것이 나에게서 슬픔이었다.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단정하게 헤매는
어머니도 당시엔 안쓰럽지 않았으나 며칠
씩 엄마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울함이 있
었다. 노력하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고 가르쳐 준 교육을 받아들였다.

성인이 돼서 남편의 사고에 의한 죽음
은 공포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를 주는 큰 트라
우마를 경험 했음에도 이제까지 잘 살아올

수 있던 힘은 영리함, 목표지향적 사고 등
이었다. 그렇게 해서 인생 초반에 찾아온
삼각파도를 기막히게 뛰어 넘었으니까!...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나의 삶에 대한
실존을 경험했다. 지역사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나의 삶을 충분히 조망하는
영리함을 또 가지게 되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는 욕
구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후
회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내
인생도 불현 듯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다. 현재 오늘이 중
요한 날이다. 기왕에 해야 될 일이라면 행
복을 느끼는 방법을 선택하자로 나의 삶의
스타일을 바꿨다. 이렇게 가치를 바꾸고
보니 또 하나의 소득을 얻게 되었다.

대체로 매사에 내려놓음이 가능해졌다
는 고백을 하고 싶어진다. 하다못해 내가
위에서 거론한 스스로 독립적이기 위해서
추구했던, 물질, 명예, 잘 키운 자녀등도
내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가치를 기꺼이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자유로워지다니...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다시 생각해 봐도 행복하다.

나는 슬픔도 기쁨도 다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물질도 적당하면 좋을 것 같다.

결혼한 자녀들도 저희들끼리 잘 살아
주면 크게 효도하는 것이다.

사건들이 많았으나 잘 통과해서 기쁘다.

정서적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다

죽음을 앞 둔 미래의 나에게 지금 나

잘하고 있다고 물어 보니 환하게 웃으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생애사적 관점을 통해 세월호 사건이 한 개인의 삶에, 특히나 상담자로서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를 가졌으며, 그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상담자의 성장에 관한 내적 과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담자가 삶 속에서 갑자기 닥치는 재난이나 죽음을 겪으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들 알아보고 그에 담겨진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상담자는 재난을 겪고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내담자를 만나는 사람들로써 내담자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다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담자가 가진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담자의 성장 과정을 조명하고 분석해 보는 것은 상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남아있는 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Mandelbaum이 제시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3가지 분석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삶의 영역은 「자아상을 형성한 어린시절」, 「동화 속 결혼」,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슬픔 속에서 한 발 내딛기」, 「상담자의 길」, 「반듯하게 자란 자녀들」, 「세월호 사건」으로 7개, 삶의 전환

점은 「생 앞에 놓인 죽음」, 「삶의 이정표, 상담」 2개였으며, 적응은 「세월호 사건 이전」, 「세월호 사건 이후」 2개가 도출되었다. 또한 이 범주들 내에서 총 15개의 하위차원 개념이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삶의 영역은 「자아상을 형성한 어린시절」, 「동화 속 결혼」,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슬픔 속에서 한 발 내딛기」, 「상담자의 길」, 「반듯하게 자란 자녀들」, 「세월호 사건」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는 남성 위주의 생계 운영이 보편적이었던 시대에 태어나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며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다. 태어난 지 3주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로부터 남자로 태어났으며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근원 없는 죄책감을 무마하고자 어린 시절 특유의 생존본능과 적응능력으로 집안의 기대를 받으며 꿈을 키웠다. 그러나, 스스로 원하는 대로 장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에 따라 교사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사가 되었고, 결혼을 잘해야 한다는 말에 따라 능력 있는 남편과 일찍 결혼을 한다. 자신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인으로 독립하여 살아갈 능력이 있었지만, 그 당시의 시대상과 주변의 기대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는 여자는 혼자서는 주체적으로 살기 힘들고 남자한테 의지하고 종속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남성 우월적인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것이다.

1980년대 초반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자신

의 직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연구참여자도 결혼 후에 가정에 충실하고자 직업을 그만 두었다. 아이 셋을 낳아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던 연구참여자는 돌연 의료사고로 남편을 잃게 된다. 연구참여자에게 어린 시절부터 중독된 여성상을 이야기하던 어머니였지만, 자신의 삶과 비슷한 경로를 걷게 된 딸에게 남편 사별 후에도 잘 살 수 있으니 용기를 가지라고 지지를 해주었다. 이는 어머니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이기도 하며 당시 여성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차츰 빠져나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며, 지인의 소개로 재혼을 하게 된다. 재혼 후 안산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안산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게 되면서 상담자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작년 세월호 사건으로 재난과 죽음을 목격하고 실존주의적 상담자로 성장하면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현재 삶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담자,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다.

둘째, 삶의 전환점을 보면 「생 앞에 놓인 죽음」, 「삶의 이정표, 상담」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은 상실이라기보다는 결여, 부재에 가까운 죽음이었다면, 남편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과는 다른 뻗속 깊이 아픔으로 스미는 고통이었다. 남편과의 사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헤어짐이라는 이별의 슬픔과 희망하던 꿈의 몰락, 좌절이었다. 절망 속에 있던 연구참여자는 당시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진행되었던 지워버리기 식 애도를 하였다. 고인의 물품을 남기지 않

고 눈에서 치워버려야 빨리 잊을 수 있다는 전통적인 애도의 방법은 연구참여자의 삶에서 빨리 남편을 지워내고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참여자는 상담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1990년대 당시에는 국공립 청소년상담기관이 1993년 24개소 밖에 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에는 상담이라는 학문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시기였다. 연구참여자는 어린 시절의 가족 지지의 부재와 첫 남편과의 사별 당시 건강한 애도 방법을 가이드 받지 못했던 경험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 후 정부부처 산하 상담관련기관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기관을 키워왔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남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셋째, 50대 여성상담자의 적응은 「세월호 사건 이전」, 「세월호 사건 이후」으로 나누어져 나타났다. 세월호 사건 이전에 삶에 대한 적응 방식은 아버지의 부재와 남편의 상실로 인한 빈자리를 연구참여자가 채우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변의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 하고자 했으며, 단점은 단점대로 배워나갔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종교는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영적 자원의 기반이며, 종교가 있음으로 인해 삶의 굴곡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의 적응양식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사건 이전에 ‘죽음’이라는 가장 견디기 힘든 사건들을 경험해왔고 세월호 사건에서 ‘죽음’의 정점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

-여기의 삶에서, 남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과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살아내는 과정을 통한 적응 양식의 체득을 통해서 고유한 '상실에 대한 올바른 애도' 적응 양식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 적응양식이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개인의 적응양식으로만 그쳤다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상담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여 이겨낼 수 있는 지지자, 인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연구 참여자의 인생을 바꿔 놓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 이후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달성하는 게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목적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다면,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현재의 삶의 가치를 절실하게 깨닫고, 지금-여기에서의 나의 욕구에 충실한 삶의 태도로 전환되었다. 자녀와 남편 등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했다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가족의 욕구와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세월호 재난상담을 통해 희생자의 가족들이 상실과 슬픔을 극복하는데 상담자가 함께 애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그 필요성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그 슬픔을 상담자가 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참여자는 죽은 자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전통적인 애도와는 다른 방식인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애도의 방법을 제안했다. 죽은 자는 죽은 자 대로, 산 자는 산 자 대로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삶과 죽음의 공존을 이야기 했다. 세월

호 사건을 통해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죽은 아이를 빨리 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애도가 아니라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리 내어 많이 울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서야 남아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가 사라진 죽음과 상실 앞에서 현재 삶을 살아내야 할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죽음의 장면들을 통해 진정한 애도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되었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 애도에 대한 그 동안의 자신만의 깨우침을 상담자로서 슬픔을 겪는 유가족에게 적용하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상담자들의 소진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상담자가 아직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더욱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상담자들은 자신의 문제부터 치유하는 조망능력이 필요하며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내면을 챙기는 데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상담자의 경우 세월호와 같은 큰 재난으로 외상(trauma)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 있는 내담자를 다룰 때 더 큰 소진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상담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들에게 상담자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상담자에 대한 소명 의식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 또한 정부부처 산하 상담관련 기관 책임자로서 세월호 사건 당시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위기대응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되었고,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우리 사회에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재난을 우리사회가 경험했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세월호 사건 이전까지는 상담자는 개인의 소명을 달성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는 못 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누구에게나 재난과 죽음은 찾아오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상담자가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직업적 사명감도 가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변화들은 자신의 삶에서 겪은 다른 죽음과 상실들에 대한 의미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통합되고 숙성되어 실존적 인간으로서 죽음의 의미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 삶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가지게 됨으로서 가능한 것이었다.

연구참여자가 삶에 있어 핵심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때 긍정적인 성장으로 승화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대응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첫 남편과의 사별에서도 슬픔에 잠겨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해보려고 하는 힘, 세월호 사건 당시 연이은 주변의 죽음에도 함께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가족을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정도의 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힘의 근원은 연구참여자가 '자아존중감'이라고 표현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꿈을 가지고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

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고 자기를 객관화 하는 능력은 자기 정서 관리, 신체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타인의 심리를 헤아릴 수 있는 조망능력의 바탕이 되었고 이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기본 역량도 갖추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가 삶 속에서 죽음을 접한 세 가지 사건인 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 세월호 사건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죽음의 의미가 삶에 부여하는 가치를 본 연구에서 드러내었으며, 이는 앞으로 삶에서 재난을 당해 힘들어 하는 내담자 뿐 만 아니라 상담자들에게도 애도의 방법과 떠난 이들과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국내에서 Mandelbaum 연구 방법으로 쓰인 생애사 논문들은 다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되는 삶의 영역, 전환점 적용을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래 Mandelbaum 연구 방법론이 처음 사용된 Mandelbaum의 간디 생애사 연구에서는 간디 한 사람의 생애사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Mandelbaum 형식 본래의 의도에 부합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성장 요건과 과정에 대해서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분석한 것으로 원고 작성 후 연구참여자에게 보내어 내용 검증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가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 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고유한 성장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기에 용이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참여자가 평범하지 않은 발달사를 거쳐 왔고 한 명의 생애사 분석이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상담자 전체의 특징으로 일반화하는데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수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자의 성장과정 및 발달적 특징을 연구하여 상담자 발달 모델을 연구하기를 제안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을 상담한 상담자들의 대다수가 심리적인 소진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을 이루어 낸 상담자를 대상으로 성장의 요인에 집중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재난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소진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훈 (2011). 태풍 '나리'로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의 심리지원 분석. 탐라문화, 38, 279-307.

권해수 (2011). 성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 관련 변인 연구: 상담유형, 외상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145-430.

권해수, 김소라 (2006).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95-518.

김보경 (2012). 성폭력, 성매매 상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대리외상 관계에서 외상 신념의 매개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박성우 (2010). 재난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미친 장·단기적 영향 및 재난관리와 정신보건관리체계와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재난과 심리,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정보센터 교육자료.

박윤미, 윤혜미 (2011).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한 역할갈등, 업무 부담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5, 289-322.

박지영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외상 관련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관련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177-206.

박지영 (2013). 외상피해원조실무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소진은 서로 다른가?.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4(2), 383-404.

신혜섭 (2010). 가정폭력상담원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직무요인이 대리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45-61.

이문희, 하 정 (2011). 대가 이동식 선생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 연구, 12(3), 835-860.

이성복 (2001).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서울: 문학동네.

이양자, 정남운 (2008).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이효선 (2010).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애발달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F. Schutze의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인간발

- 달연구, 17, 49-84.
- 정여주 (2011).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클라이언트 폭력이 이차적 외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은희 (2006). 재난이 피해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미친 장·단기적 영향 및 재난정신건강관리체계 개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ams, R. E., Boscarino, J. A. & Figley, C. R. (2006). Compassion fatigu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social workers: A validation stu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1), 103-108.
- Benatar, M. (2000). A qualit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a history of childhood sexual abuse on therapists who treat survivors of sexual abuse.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1(3), 9-28.
- Beutler, L. E., Malik, M., Alimohamed, S., Harwood, T. M., Talebi, H., Noble, S. & Wong, E. (2004). Therapist variables. In M. J. Lambert, A. E. Bergin & S. L. Garfiel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pp. 864). England: John Wiley & Sons.
- Brown, S. D. & Lent, R. W. (2000).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Wiley.
-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3), 521-527.
-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 (2005). An approach to teaching ethics courses in human services and counseling. *Counseling & Values*, 49(3), 193-207.
- Follette, V. M., Polusny, M. M. & Milbeck, K. (1994). Mental health and law enforcement professionals: trauma history, psychological symptoms, and impact of providing services to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5(3), 275-282.
- Frankl, V. E. (2005). 죽음의 수용소에서 [*Man's search for meaning*], (이시형 역). 서울: 청아출판사. (원전은 1964에 출판).
- Ghahramanlou, M. & Brodbeck, C. (2000). Predictors of secondary trauma in sexual assault trauma counsel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ency Mental Health*, 2(4), 229-240.
- Harrison, R. L. & Westwood, M. J. (2009). Preventing vicarious traumatization of mental health therapists: Identifying protective practice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6(2), 203-219.
- Herman, M. D. (1997).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 Kierkegaard, S. A. (2007). 불안의 개념/죽음에 이르는 병 [*Sygdommen til Doeden*], (강성위 역) 서울: 동서문화사. (원전은 1849에 출판).
- Loganbill, C. R., Hardy, C. V.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 Mandelbaum, G. (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3), 177-206.
- McCann, I. L. & Pearlman, L. A. (1990).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 131-149.
- Paul, V. C. (2012). 무신론의 심리학 [*Faith of the fatherless : the psychology of atheism*], (김요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원전은 2000에 출판).
- Pearlman, L. A. & Saakvitne, K. W. (1995). Treating therapists with vicarious traumatization and secondary stress disorder. In C. Figley (Eds.),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pp. 150-177). New York: Brunner/Mazel.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505-515.
- Trippant, R. L., Kress, V. E. W. & Wilcox, S. A. (2004). Preventing vicarious trauma: What counselors should know when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1), 31-37.
- VanDeusen, K. M. & Way, I. (2006). Vicarious trauma: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mpact of providing sexual abuse treatment on clinicians' trust and intimacy.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5(1), 69-85.
- 1차원고접수 : 2015. 07. 26.
심사통과접수 : 2015. 09. 12.
최종원고접수 : 2015. 09. 20.

A Life History of the Female Counselor's Participated in Sewol Ferry Disaster Counseling

Dong-Hun Lee

Ji-Young Shin

You-Jin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a female counselor in her late fifties participated in Sewol ferry disaster counseling in An-san region last year. She participated in providing counseling for the victims' families of Sewol ferry disaster, additionally establishing governmental psychological supports plan for recovering collective trauma in An-san region community, through which she have gotten self-reflection of whole her life. For in-depth interview data analysis, Mandelbaum's three conceptual frameworks were employed; dimensions, turnings, and adaption. Result of study indicated the extracted categories such as 'having a self image in youth', 'marriage in fairy-tale', 'unexpected death of husband', 'taking a step forward from darkness', the way of counselor, nice grown child', and 'Sewol ferry disaster' in life dimension, 'death in front of life', and 'milestone in life, counseling' in turning points, and 'before Sewol ferry disaster', and 'after Sewol ferry disaster' in adaption. Life history methods revealed the counselor's internal developmental process by analyzing what Sewol ferry disaster influenced on an individual life, especially a counselor's one, what changes she went through, and how she adapted herself to tha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Key words : Sewol ferry, female counselor, development of counselor, Mandelbaum's life history